

【서평】

『공자의 발견: 脫朱子 論語學』

(이수태 지음, 서울: 바오출판사, 2015, 456쪽)

조정은

강고한 주석의 외피를 걷어 낼 때 드러나는
공자의 진면목

공자와 논어, 2500년간 끊임없이 탐색된 대상이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식상한 주제이기도 하다. 이수태 선생의 『공자의 발견』은 식상함으로 공자와 논어에 다가서는 관성에 큰 경종을 울린다. 저자의 논어 해석은 한마디로 새롭다. 그 긴 주석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제기되지 않았던 해석을 선보인다. 따라서 공자 역시 그 긴 주석 역사에서 강고하게 덧씌워진 외피를 걷어 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온다.

부제인 ‘탈주자(脫朱子) 논어학’이 말해 주듯 이 책의 목적은 간명하다. 바로 “주자의 『논어집주』 800년의 역사는 단호히 종막을 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방점이 주자 비판에 있는 것은 아니다. 주자 해석을 위시한 논어 오독의 장벽을 걷어 냈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공자의 진면목에 더 많은 이들이 다가가기를 바라는 저자의 간절한 목소리가 이 책에 담겨 있다. 공자의 진면목을 접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변화가 더 나은 현실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저자는 동양철학 전공자가 아니다. 그렇다고 다른 분야의 학계에 종사한 것도 아니고, 32년간 학계와 아무 상관없는 공직 생활을 해 온 이력의 소유

자이다. 하지만 이미 1999년에 『새번역 논어』와 『논어의 발견』을 세상에 내놓았고, 2014년 두 책의 개정판이 나왔다. 『공자의 발견』은 저자의 세 번째 논어 연구서인 것이다. 논어를 토대로 한 책인 만큼 이미 출간된 두 책과 연계성이 크지만 저자의 자평을 인용해 차별성을 말하자면 논어라는 “같은 텍스트를 경유했으면서도 이번의 책은 논어 단편이 지닌 다양한 메시지들의 내적 연관과 교호를 통해 공자라는 ‘컨텍스트’를 엮어 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다.”

공자의 3대 관점, 주자는 없었다

이 책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되어 있다. 공자에 대한 개괄적 접근을 하고 있는 첫 번째 부분과 공자와 논어가 놓인 배경을 다루는 마지막 부분은 평이하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다. 세 번째 부분은 조금 더 전문적 내용으로, 열다섯 개 주제를 다루며 논어의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다. 이 책의 가치가 가장 빛나는 부분은 기존의 논어 해석을 비판하고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면서 공자 사상의 정수를 서술하는 두 번째와 네 번째 부분이다. 특히 공자의 3대 관점을 다루는 두 번째 부분은 어떤 논어 연구서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새로운 시각에서 공자 사상의 핵심을 밝힌다. 네 번째 부분은 『논어집주』 및 논어 오독을 초래한 기존 주석에 대한 비판의 관점이 조금 더 강하다. 지금까지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석들이 얼마나 평면적 이해에 머물며 단편들을 왜곡했는지 보여 준다.

저자가 드러낸 3대 관점은 수기(修己), 불이과(不貳過), 양단(兩端) 극복이다. 저자가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논어 밖을 넘어 가지 않는다. 즉, 한 단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그 단편에만 그치지 않고 연쇄적으로 다른 단편과 관련성을 가지며 공자의 관점을 구성한다. 저자가 새롭게 해석한 단편은 모두 75개인데, 교수신문(2015.11.16.)에 실린 저자의 글에 따르면 이들 단편은 대부분 공자만의 수준 높은 체험을 담고 있고,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다양한 논리적 반전을 보여 준다. 반전을 이해하지 못한 해석자들

은 예외 없이 해석을 그르쳤으며, 그 결과 공자 사상의 정수를 보여 주는 단편들은 한 번도 그 정체를 드러낸 적이 없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논어 해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주자 역시 그릇된 해석에서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저자는 주자의 『논어집주』를 “논어의 무덤”이라고 부르는 데에 주저하지 않는다. 실제 75개 단편 해석 어디에도 주자는 없었다. 저자는 “누구든 주자의 옷자락을 잡고 논어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려 하는 한 그는 결코 공자라는 저 희유한 인물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수기(修己)의 관점이 아우르는 단편들

저자가 드러낸 공자의 관점이 어떻게 여러 단편들을 아우르는지 “수기”를 대상으로 살펴보자. 수기의 관점은 논어의 “고지학자위기, 금지학자위인(古之學者爲己, 今之學者爲人)”에서 유래한 위기지학(爲己之學)에 근거한다. 앞뒤 문장 구조가 동일한 이 단편은 구조대로 풀면 “옛날에 배우는 이는 자기를 위했고, 요즘 배우는 이는 남을 위한다”가 된다. 저자는 이렇듯 간결한 해석을 놓아두고 뒤 문장을 “요즘 배우는 이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 배운다”로 풀이하는 것이 정이로부터 주희에게, 그리고 오늘날까지 흔들림 없이 이어져 왔음을 발견한다. 그리고 이 옹색한 해석은 남을 위해 배우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몰랐던 탓이라고 지적한다.

오늘날 시각에서도 상아탑에 갇히지 않고 사회 기여를 도모하는 것은 학문의 바람직한 방향이다. 공자 역시 이를 거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방법은 오롯이 자신을 향해 있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남을 위하는 일은 수기의 효과로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것이지 그 자체를 학문의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 공자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수기는 결코 『대학』의 수신(修身)처럼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로 나아가기 위한 선결 단계가 아니다. 수기가 시작이자 끝인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수신은 수기의 타락 개념”이라고 평가한다.

저자는 이러한 수기의 관점에서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 勿施於人)”이라는 너무도 유명한 구절에 대해 그간의 해석이 틀렸다고 잘라 말한다. 이 구절은 『중용』의 해석을 따라 “남이 자신에게 행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라면 자신도 남에게 행하지 말라.”¹⁾라는 뜻으로 풀이되어 왔다. 이 풀이를 뒤집으면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라는 황금률과 비슷한 내용이 된다. 하지만 저자는 “기소불욕, 물시어인”이 황금률과 비슷한 언명이 아니라 자기 수양, 즉 수기 없이 타자를 대상으로 무언가를 베풀고자 하는 행위를 경계하는 말이라고 해석한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부모가 스스로 솔선수범하려 하지 않으면서 자식에게 바른 길을 제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내 의지의 지향이 담긴 욕(欲)과 외부로부터 무언가를 바라는 원(願)의 부조화, 시(施)의 대상이 부정적인 것이 되는 어색함이라는 문자적 차원의 근거에만 의지한 것이 아니다. 여러 단편들이 보여 주는 공자 특유의 수기관이 가장 든든한 근거이다. 예를 들어 “기소불욕, 물시어인”이 금지의 언사로써 수기의 중요성을 말한다면 “기욕립이립인, 기욕달이달인(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은 실천의 측면에서 수기의 중요성을 말한다. 이 구절은 “자신이 서기를 바라면 남을 세우고, 자신이 통달하기를 바라면 남을 통달시킨다”로 해석되어 왔다. 하지만 저자는 언제나 “자신을 개선하는 것만이 바로 남과 이 세상을 개선하는 유일한 실천 기제”로 본 공자에게 이러한 해석은 결코 적합하지 않다고 말한다. 내가 서고자 하여 남을 세운다는 것은 내가 서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두고 남을 대신 세운다는 이타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그것은 어썩은커녕 오히려 놓은 탐욕에 불과하다”고 일갈한다. 남이 서게 되는 이유는 내가 그를 직접 세우는 데 있지 않다. 나는 나를 세울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 모습이 남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세우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뿐이다.

계강자와 공자의 대화에서도 저자는 수기의 관점을 찾아낸다. 계강자가 일벌백계를 통해 무도를 엄단하려는 뜻을 보이자 공자는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당신이 선해지고자 하면 백성들이 선해집니다”라고 말한다.²⁾ 일벌

1) 施諸己而不願, 亦勿施於人.

백계는 타자를 향한 방법이다. 공자는 위정자가 힘쓸 바는 자신을 대상으로 한 수양뿐임을 말한 것이다. 또한 계강자가 백성들이 공경하고 충심을 갖도록 하는 것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는 엄숙히 임하면 공경하고, 효성과 자애를 다하면 충심을 갖는다고 답한 후, “거선이교불능즉권(舉善而教不能則勸)”이라는 말로 마무리한다.³⁾ 이 구절은 보통 “거선이교불능, 즉권”으로 끊어 읽어 “선한 사람을 등용하여 무능한 사람을 가르치면 백성들은 힘쓰게 됩니다”로 해석한다. 하지만 저자는 “거선이교, 불능즉권”으로 끊어 읽으며 계강자 자신이 선한 행위를 실천함으로써 백성에게 공경과 충심을 가르쳐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야 권장한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즉, 계강자 자신이 엄숙히 정사에 임하고 효성과 자애를 다한다면 따로 권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타자를 향한 권장은 하책일 뿐이다.

논어에 한 차례 나오는 무위에서도 저자는 공자의 지향점을 다시금 확인한다. 순 임금에 대해 공자는 무위하며, 즉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다스렸다고 말한다. 그리고 오직 스스로를 공경히 한 채 똑바로 남면했을 뿐이라고 덧붙인다.⁴⁾ 공자의 지향점은 남을 바르게 이끄는 데에 있지 않다. 언제나 자신을 제대로 이끄는 데에 있을 뿐이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나 자신을 다스리는 데에서 시작하고 거기에서 끝난다. 따라서 안연에게 들려준 극기복례(克己復禮), 즉 자신을 이겨 내고 예로 돌아간다면 천하가 어짐으로 돌아온다는 공자의 말은 결코 과장된 언사가 아니라 공자의 진정한 믿음이었던 것이다.

수기의 관점은 제자들에게 전하는 지침에도 들어 있다. 자공은 “저는 남이 저에게 영향을 끼치게 하려 하지 않고, 저 역시 남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으려 합니다.”⁵⁾라고 자신의 다짐을 말한다. 이에 대한 공자의 답인 “비이소급야(非爾所及也)”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해석되어 왔다. 저자는 가급(可及)이 아닌 소급(所及)이 “할 수 있는 일”로 해석되는 문제

2) 季康子問政於孔子曰, “如殺無道, 以就有道, 何如?” 孔子對曰, “子爲政, 焉用殺? 子欲善而民善矣. 君子之德風, 小人之德草. 草上之風, 必偃.”

3) 季康子問, “使民敬忠以勸, 如之何?” 子曰, “臨之以莊則敬, 孝慈則忠, 舉善而教不能則勸.”

4) 子曰, “無爲而治者其舜也與. 夫何爲哉? 恭己正南面而已矣.”

5) 我不欲人之加諸我也, 吾亦欲無加諸人.

점뿐 아니라, 자공의 성향을 근거로 이것이 틀린 해석임을 밝힌다. 자공에 관한 단편들은 자공이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활발한 사회성을 지닌 인물이었음을 보여 준다. 자공이 평생토록 실천해 나갈 바를 물었을 때 “기소 불욕, 물시어인”을 말해 준 것에서도 알 수 있듯,⁶⁾ 외향성을 지닌 자공에게 공자는 항상 수기를 촉구했을 것이라고 저자는 추측한다. 남과 나 사이 어떤 관계도 설정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타고난 외향성과 스승의 요구인 수기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독아론에 빠진 모습을 보여 준다. 공자는 자공의 목표가 잘못 설정되었음을 말해 준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해당 구절을 “네가 이르러야 할 바가 아니다”로 해석한다.

저자 해석에 대한 평가와 궁금한 점

일부만 언급했음에도 저자가 밝힌 공자의 관점은 여러 단편을 아우른다. 저자가 지적한 “공자의 관점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석을 그르쳤고 해석을 그르쳤기 때문에 그의 관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악순환에서 알 수 있듯, 공자의 관점과 그 관점이 아우르는 단편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긴밀성은 저자 해석에 설득력을 더하는 강점이면서도, 긴밀한 짜임의 어느 한 부분이 흔들렸을 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취약성을 지닌다. 나는 저자가 되살려 낸 공자의 모습과 이와 맞물린 새로운 단편 해석이 엮어 놓은 탄탄한 짜임을 흔들 만한 반론을 구성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달리 평가하는 시각도 있을 것이다. 저자의 해석에 대한 찬반론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공자와 논어를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길이 열리기를 희망한다.

공자 사상의 주요 개념인 예(禮)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소략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저자는 『새번역 논어』에서 “회사후소(繪事後素)”를 “그리는 일이 있은 후에야 순수함이 살아난다”로 해석하며 “공자는 언제나 형식을 통해 내용을 확보하려 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예악에 대한 야인과 군자의 차이를 서술하는 논어 11.1에서 “소수의 군자들을 제외하고는

6) 子貢問曰, “有一言而可以終身行之者乎?” 子曰, “其恕乎! 己所不欲, 勿施於人.”

대부분 예악을 먼저 가르쳐서 그 예악에 갖든 정신을 각 인격에 구현토록 하는” 공자의 교육법을 읽어 낸다. 이 외에도 “인이불인여례하, 인이불인여악하(人而不仁如禮何, 人而不仁如樂何)”에 대해 어진 내면을 바탕으로 예악을 행해야 한다는 해석 대신 예악을 통해 어둠이 양성된다는 해석을 취한다.

이러한 일련의 해석으로 볼 때, 저자는 공자의 예를 그 실천을 통해 도덕적 완성을 도모하는 외재적 규범으로 이해하는 것 같다. 그리고 예의 수행이 가져오는 힘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사회를 하나의 거대한 예식이 수행되는 공간으로 본 평가레트의 해석과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예와 관련하여 공자의 수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저자도 평가레트처럼 예를 익혀 실천하는 것을 수기의 관건으로 보는 것일까?

평가레트는 공자가 예의 정당성을 전통에서 확보한다고 본다. 이 입장에서 전통의 강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혼란한 시대를 살며 이러한 혼란이 있기 전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의 총체로서 순조롭게 기능한 예를 회복하기를 바랐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전통의 강조는 격변하는 시대상에 맞는 새로운 질서와 규범을 제시하지 못하고 구시대를 모범으로 삼았다는 비판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저자가 이 두 시각 사이 어느 지점에서 공자의 예를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논어 9.3에 나오는 비록 예가 아니더라도 많은 이들이 따르는 방식이 옳다고 판단되면 이를 취하겠다는 공자의 말은 개인이 도덕적 주관에 따라 예를 새롭게 정의할 여지를 보여 준다. 재정의를 예는 전통 대신 새로운 사회적 합의와 개인의 도덕적 판단에서 그 정당성을 확보한다. 공자의 예에서 전통에 기반을 둔 규범과 개인의 도덕적 주관이 차지하는 비중, 전자와 후자의 측면에서 수기와 예가 갖는 관계에 대해 저자의 해석을 듣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 글에서 소개하지는 못했지만 중중반정으로 연산군이 퇴장한 후 조광조를 중용하고 얼마 안 가 척출한 사실에 비유한 양호의 퇴장과 맞물린 공자와 공자 학단의 정치적 부상과 퇴조, 이단이 헤테로독시로 해석되고, 맹자에서 시작된 오독으로 진취가 긍정적 의미로 자리 잡고, 색이 난데없이 여색이 되어 버린 오류, 논어 편집자의 우스꽝스러운 실수 등등, 너무도 익

속하다고 생각했던 논어가 그리고 그 속의 공자가 실은 2500년 동안 먼지를 켜켜이 뒤집어 쓴 채 세상 빛을 기다리는 보고임을 이 책은 여실히 보여 준다.

투 고 일: 2015. 12. 15
계재확정일: 2016. 01. 27

조정은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객원연구원